

해: 기호와 사유 기말 보고서
왜 우리는 말을 당당하게 못하는가?

미디어학과
201021383
김민수

1. 서론 - 나도 한번 말해 볼까?

고등학교 3년간의 수험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대학에 입학했다. 내가 선택했던 전공은 자유전공이었다. 당시 아주대에 법대가 없어지고, 로스쿨이 생김과 함께 의대, 치대와 약대도 미트, 피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학교에서 입학생 수를 맞추기 위해 만들었던 학과였던 것 같다.

지금은 학과 자체가 없어지고 동기, 선배, 후배 모두 뿔뿔이 다른 과로 흩어졌지만, 당시에는 대학의 자유로운 이념에 가장 들어맞아 이상적인 학과라고 생각했다. 딱히 정해진 소속감이 없었던 것은 아쉬웠지만 내 전공을 찾기 위해 산업공학과, 전자공학과, 심리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등 많은 전공의 수업을 들으며 고민했으며, 결국에는 미디어학으로 전공을 결정하여 지금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내가 정보 컴퓨터공학과 강의를 수강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최첨단 학문을 배우기 위해 나는 정보 컴퓨터공학과와 기초 과목 '컴퓨터 공학 개론'을 신청했다. 수업은 난해했고, 이해되는 설명들보다 이해해야 하는 설명이 더 많았다. 대학 강의는 이렇구나 하며 어렵사리 지내던 학기의 중간쯤에, 흔히 말하는 팀플 즉 조별과제가 주어졌다. 어렵스런 기억을 더듬어보면 요즘 주목받는 신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그 기술에 대하여 수업시간에 10분 정도 발표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한 과제였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받은 과제였고, 학과가 다르다 보니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도 없었다. 교수님은 매우 자유로운 분이셔서 조도 자유롭게 알아서 2~3명이 모여서 하라고 하셨고, 나는 한 달 정도의 수업 동안 옆자리에 앉았던 형과 함께 조를 구성하게 되었다. 우리 조의 발표 주제는 스마트 그리드에 관한 것이었다. 조별 과제는 무난하게 진행되었고, 형이 거의 전적으로 주도해서 조사도 하고 발표자료나 피피티 등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의 첫 조별과제는 무난하게 지나가는 듯싶었다.

그러나 발표 당일, 교수님은 모든 조의 발표자를 임의로 지목하셨고, 우리 조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내가 발표자가 되었다. 조별 과제를 하는 동안 내가 주도적으로 준비한 것도 없었고,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으며, 다들 4학년쯤 되면 이빨로 버터본 강의도 1~2개쯤 있다지만, 어리버리한 1학년 신입생이었던 나는 그런 눈치도 없었다. 초조하게 앞으로 걸어 나가서 피피티를 켜고, 한 줄, 한 줄 아는 것들을 최대한 읊조리고는 있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머릿속이 새하얗게, 새하얗게 될 때쯤 지금까지의 발표가 어땠는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었고, 그 뒤 몇 번의 교수님과 형의 질의응답이 오간 후 나는 자리로 돌아왔다. 그 뒤로는 수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같이 수업 듣던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다.

그 일이 있는 후, 나는 미디어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조별 과제가 몇 번 있었지만 발표는 선배들에게 부탁하고 나는 자료조사나 발표준비 등 최대한 발표와 상관 없는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리 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02학번인 박종욱 형을 만나게 되었다. 미디어학과 필수과목인 디지털미디어 강의와 디자인기초 강의 두 개를 같이 들었고, 두 수업의 팀 과제에서 형의 발표를 듣게 되었다. 형은 02학번이지만 그동안 사운드 회사에 다니며 사회

생활을 남들보다 한발 먼저 하였고 지금은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잠시 이번 학기 동안 수업을 듣는다고 했다. 나보다 10년이나 더 살았고, 사회를 먼저 경험했던 사회인의 내공은 역시 어마어마했고 남들 앞에서 말하는 데 자신이 없었던 나에게는 형과 나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

나는 왜 저렇게 말하지 못할까?

이 고민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다. 학교를 2년이나 다니고, 군대에서 조교로 복무했지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고, 힘들었다. 이러한 고민이 자괴감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때쯤 이에 대한 해답을 이제서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이상신 교수님의 '해: 기호와 사유'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월터 J. 옹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책을 공부하게 되었다. 간단히 서문을 살펴보면 "인간에게 언어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과거에는 구술을, 지금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구술문화와 문자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공부했고, 내가 왜 말을 잘 못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듯 싶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살았던 문자문화와는 전혀 다른, 구술이 언어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구술 문화의 관점 속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2. 나는 왜 말을 잘하지 못하는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3장에서는 구술성의 정신역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3절에서 구술문화의 사고와 표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저자가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구술문화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 보았다.

2-1.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구술문화에서, 인과관계가 뚜렷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은 화자가 천재이거나 매우 짧은 문장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한 논리 정연한 문장은 많은 생각과 그 생각들의 연결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발화 속에서는 피어날 수 없는 꽃이었다. 구술되는 말은 생각과 생각이 논리적인 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시간적으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고 언어는 대개 앞서 한 말에 뒷말이 덧붙여지기 일쑤다.

그러나 나는 더 논리정연하게, 더 유려하게 말하기 위해 노력했고 당연히 이런 구술은 다채롭고 빠르게 진행되는 발화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2-2. 자세하고 세세하게 말하기 힘들면 뭉뚱그려 이야기하자.

발화되는 말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다 발화되는 그 순간 잠시 나타나고 사라진다. 구술은 필연적으로 나열하고 살펴보거나 나누고 세세하게 분석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구술문화에서는 어떠한 개념에 대해 분석해서 이해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수식구를 붙여서 집합적으로 그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에 익숙하고, 한자 문화권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분할해서 파악했었던 나에게 구술문화의 집합적인 문장은 매우 길고, 장황하며 어린아이 같은 문장으로 느껴졌다.

2-3. 장황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자.

대개 구술되는 말은 그 시간에 즉흥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즉 문자처럼 미리 씌어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며, 평소 생각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발화하는 순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매 발화시마다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채롭게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교과서라는 텍스트에 씌어있는,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적인 답을 생각하며 말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진 나는 장황하고 다변의 발화 속에 녹아들기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2-4. 옛 어른들 말씀이 옳다.

구술문화에서는 우리의 기억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나 후대의 사람들에게 생각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기억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불안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원래 알고 있는 즉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기억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기억에 방해가 되는 사색이나 색다른 관점은 모두 배제되었다. 즉, 쓰기가 나와서 우리에게서 기억을 해방시켜주기 전까지 우리의 언어는 기억을 위한 도구였고, 옛날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견해를 도출하거나 다른 방향으로의 의견을 도출하는 데 익숙했던 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보다 새로운 의견, 색다른 견해가 더 중요했고 나의 기억 속에는 정형화되고 정제된 사실보다 생각이 발전하는 과정, 다른 의견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주로 자리 잡고 있었다.

2-5. 말하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주위를 돌아보자.

쓰기는 생활 경험에서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지식을 구조화한다. 그리고 세련되고 분석적인 카테고리라는 것은 그러한 쓰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구술은 이러한 카테고리가 없어 모든 개념을 인간 생활 속에 관련을 짓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구술 문화에서 사람들이 발화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모두 생활 속에서 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모든 발화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그들은 생활 속에 관련된 지식과 개념을 발화로 가져다가 쓸 수 있으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그러나 문자문화 속의 나는 추상화되고 세련된 카테고리가 없으면 지식을 분류하지도 구분할 수도 없었으며, 난잡하게 느껴지는 개념을 발화에 가져다 쓰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2-6. 조금 더 격하게, 울분을 토해내듯이 이야기하자.

쓰기는 추상을 기르고, 추상은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는 곳에서 지식을 분리해낸다. 즉 쓰기는 아는 주체를 알려지는 객체에서 떼어놓는다. 쓰기 이전의 상황은 발화하는 화자들의 감정을 격앙시키고 이는 좀 더 많은 발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이에 반해 문자는 논쟁적이며 격하고 빠른 발화가 나올 만한 상황을 먼저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문자 문화는 자연스럽게 발화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지 못했고, 이는

나의 구술 능력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역할을 했다. 게다가 오늘날 대개의 발화들은 정적이고 단편적이며 소모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요즘 구술이 사용되는 많은 논쟁적인 상황들과 달라서 내가 남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2-7. 내가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하자.

구술문화에서 배운다거나 안다는 것은, 알려지는 대상과 밀접하고도 감정이입적이며 공유적인 일체화를 이룩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쓰기는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아는 주체에서 알려지는 객체를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그래서 문자 문화에 익숙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전달자의 입장과 수동적인 수용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다.

2-8. 꼭 필요한 단어만 기억하고 사용하자.

문자가 없던 구술문화에서는 기억하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고로 이미 현재와 관련이 없어진 것들은 버림으로써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생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어는 항상 그 의미가 현재에 맞게 사용되고 있었고 이는 흘러 지나가버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문자 문화보다 약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술성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생겨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구술 문화 속에서도 문자 문화에서처럼 다양한 언어 사용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전이나 책과 같은 다양한 문헌들의 범람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많은 어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했다.

2-9.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을 참고해서 이야기하자.

2-5에서 보았던 구술 문화는 인간의 생활세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과 비슷하게, 구술은 추상적이고 세련된 카테고리가 없으며, 우리 생활 주변에서 그 대용을 찾았다. 그래서 구술은 우리가 말하는 상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운 구술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반면에 추상적인 관념과 생각에 의존했던 나에게, 상황에 얽혀서 진행되는 구술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방식이었다.

지금까지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에서 공부했던 9가지 구술 문화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들이 나의 말하기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그동안 나는 문자 문화의 영향 속에서 의식을 형성해왔고, 이는 필연적으로 구술 문화와 반대되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데 방해가 되어 왔던 것 같다.

3. 결론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다시 대학교 1학년 컴퓨터 공학 개론 수업으로 돌아가 보자.

그때의 발표를 다시 되새겨서 구술 문화의 특징과 비교해보면, 먼저 발표에서 자료 한 장

한 장을 넘겨가며 연속적으로 앞내용에 뒷내용을 더하듯이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앞서 했던 내용과 이제 할 내용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말하기 위해 발표를 중간, 중간 끊어야만 했고, 그 정적이 길어질수록 초조해지고 오히려 다음에 할 내용이 더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스마트라는 단어와 그리드라는 단어의 합성어를 글자 그대로 그리드라는 전력망에 스마트라는 정보통신기술을 더한 새로운 개념이라고 설명했다면 훨씬 이해하기 간편했겠으나, 나는 '그리드란 무엇이었고, 거기에 스마트를 더한 것이 더 좋은 효과와 안정적인 사례를 가져온다.'라고 세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했고, 그것은 오히려 설명을 늘어뜨리고, 듣는 학생들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기 힘들어 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횡설수설하게 되니 뒤이은 발표도 계속해서 장황하고 변화무쌍하게 진행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했던 구술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것 위주로 재차 발표를 진행하였고 발표 자료의 내용은 결국 한 장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또한 그때 당시 내용이 조금 어려웠으면 내 주변에서 예시를 들고 그 예시마다 교수님의 질문에 맞춰서 질의응답을 했었다면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추상적이고,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지식 등을 동원해서 '발전소에서 다양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IT를 접목시켰고, 이는 지금까지의 시스템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조치할 수 있다.'라고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힘든 예를 들어 발표했고 이는 내 생애 첫 발표를 재앙으로 몰고 갔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이해해서 요약한 것은 아니었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꿴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 초조하고 떨렸고, 그 후 발표는 내게 트라우마처럼 작용했다.

하지만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책을 공부하면서 추상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구술 문화의 특징들과 구체적인 사실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자문화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말하기와 쓰기라는 개념 즉, 언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구술과 문자라는 다른 부모를 가진 두 개념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3장 '구술문화의 사고와 표현의 특징'을 기말 보고서를 통해 분석하면서 구술 문화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내가 했던 말하기와 비교하면서 나의 말하기 방식에서 잘못된 점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실수들을 고쳐나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히 두렵고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하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술문화 특징들의 시각에서 하나씩 대조해 보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찾아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잘못된 점을 수정하거나 잘된 점을 강화하면서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설득력 있고 논리정연하게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